

몸 안에 매식 중재의료기기 전문기관 문 '활짝'

전북대 중재적 메카노 바이오기술 융합 연구센터 개소

전북 특화산업 탄소소재 접목... 지역성장동력 견인 기대

‘중재적 메카노 바이오 기술은 환자를 수술할 때 절개를 최소화하는 의료기법인 ‘중재의료기술’과 생체에 기계적 자극을 인가하고 세포 단위의 거동을 연구함으로써 생체 내 생리현상의 총체적 이해 및 질병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메카노 바이오로지’ 학문이 조합된 차세대 혁신 치료 기술이다.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이 기술에 대해 본격 선점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산업 거점기관 지원사업’에 선정, 28일 중재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연구하는 대형 연구센터인 ‘중재적메카노바이오 기술융합 연구센터’를 개소했다.

400평)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구성되어 분석실과 개발 가공실, 클린룸, 회의실 및 사무실 시설 등이 들어섰다.

특히 이 센터는 바이오산업, 특히 몸 안에 매식되는 3·4등급 중재의료기기의 개발과 생산 및 평가를 위해 설립된 전국 최초의 전문기관으로 이목을 끈다.

전북 대표 특화 산업인 탄소소재 융·복합 산업의 일환으로 고부가가치 탄소소재와 메카노바이오소재를 응용한 중재의료기기인 스텐트를 제조하고 평가하는 첫 센터로서 지역의 신성장동력 산업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북대학교는 28일 중재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연구하는 대형 연구센터인 ‘중재적메카노바이오 기술융합 연구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동원 총장을 비롯해 유희철 전북대병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오수만 서기관, 보건복지부 김건훈 과장,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박준규 단장, 전북도 전대식 국장 등이 참석했다.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이 기술에 대해 본격 선점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산업 거점기관 지원사업’에 선정, 28일 중재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연구하는 대형 연구센터인 ‘중재적메카노바이오 기술융합 연구센터’를 개소했다.

한편 이 센터에는 중재의료기기 관련 장비와 설비 26종이 구축된다. 장비가 구축되면 접수를 최소화한 내·외과적 시술로 주입된 스텐트에 부착된 약물을 외부 구동 시스템으로 제어해 병변 부위에 표적화 및 집중 치료를 가능케 하는 이른바 ‘메카노 바이오 혁신 중재의료기기’를 주력으로 다양한 3·4등급 매식형 의료기기 제조 및 기업지원, 사업화 등을 추진할 계

획이다.

올해 메카노바이오활성소재 혁신의료기기 실증센터(더바이스랩) 구축사업 약물을 외부 구동 시스템으로 제어해 병변 부위에 표적화 및 집중 치료를 가능케 하는 이른바 ‘메카노 바이오 혁신 중재의료기기’를 주력으로 다양한 3·4등급 매식형 의료기기 제조 및 기업지원, 사업화 등을 추진할 계

래 사회에서 가장 촉망받는 분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력 산업’이라며 “이 연구센터를 통해 전북지역이 중재적 메카노 바이오 융합기술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다하고, 특히 산학융합플라자와 글로벌 R&D 시설과의 협업을 통해 첨단부품소재 분야, 그리고 바이오 디지털 융·복합 혁신기업 유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대식 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혁신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산업을 전라북도의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한다”며, “전북도가 중재의료기기 뿐만 아니라 바이오헬스 선도지역으로 나아가는 초석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평준화 일반고 신입학 전형요강 설명회

29~30일 나이스 입학전형 사용자 설명회와 병행 개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3학년도 평준화 일반고 신·입학 전형요강 및 나이스 입학전형 사용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3 전라북도 고등학교 교육감전형(평준화일반고 입학전형) 운영으로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평준화 일반고에 진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대상은 중학교 3학년 진학부장(진학담당 교사)과 교육지원청 고입 담당 장학사며, 중학교당 1명 이상은 참석해야 한다.

설명회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평준화지역(전주, 군산, 익산)과 비평준화지역(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으로 나눠 각각 오후 2시 도교육청 창조미래(별관) 3층 시청각실에서 진행된다.

세부 주제는 △2023학년도 평준화지역 일반고 전형요강 및 배정계획 안내 △2023학년도 나이스 입학전형 사용자 설명서 안내 △2023학년도 자기주도학습전형 주요사항 안내 △2023학년도 직업계고 입학전형 안내 등이다.

2023학년도 신입학 전형요강에 따르면 전주 28개교 6,244명, 군산 8개교 1,944명, 익산 8개교 1,890명 등 총 99개교에서 10,078명을 선발한다.

이는 지난해 대비 1,054명 늘어난 숫자로, 지역별로는 각각 전주 628명, 군산 216명, 익산 210명이 증가했다. 한편 2023학년도 신입학부터 평준화일반고로 전환되는 군산상일고(구 군산상고) 모집인원도 이번 군산지역 모집정원에 포함됐다.

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12월 26~28일까지다. 중학교 졸업(예정)자는 출신(재학)중학교에서,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자는 지원 학군 교육지원청에서 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JJ 직무멘토링 데이' 개최

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28일 하림이선홀에서 JJ 직무멘토링 Day'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선배가 알려주는 취업 성공 꿀팁이라는 주제로 △인사·교육 △경영·기획 △재활·치료 △연구·품질관리 △디자인 △금융 사무 등 20여 개 분야에서 근무 중인 졸업생 현직자 멘토를 초청해 관련학과 취업준비생과의 그룹 멘토링 형식으로 운영했다.

멘토링은 현직자 멘토의 △기업 및 직무소개 △취업 준비 전략 △선배와의 Q&A의 내용으로 구성, 재학생 및 지역 청년 600여 명이 참여해 의견을 교류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이 외에도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기관과 연계한 부스 운영을 통해 도내 구직자의 취업 준비 비용 절감과 고용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안내와 청년 구직자의 심리 지원을 위한 개별 상담을 진행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 이상행 교수는 “JJ 직무멘토링 Day’는 현직자 선배들의 취업 노하우 및 현장 직무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졸업생 멘토를 초청해 우리 학생들에게 동기 부여 및 자신감을 높이고 재학생부터 체계적으로 취업 로드맵을 설계하는 등 실질적인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지원 프로그램, 학교폭력 예방 대안 될까?

관계·회복·자치 중심 생활교육 지원

도내 모든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대상 학급 단위로 학기당 1회씩 연 2회에 걸쳐 개념·실태·대처방안 교육 학생생활교육 강화 위해 따뜻한 학급만들기 프로그램 '눈길'

최근 전전 등교수업으로 인한 학교폭력이 날로 증가하면서 각급 학교에서 숙안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인권과 교권보호 차이에 대한 명확한 대응방안이 없다.

이에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에서 운영하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자체 프로그램인 그 대안으로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먼저, 도내 44개교에서는 학교로 찾아가는 회복중심의 생활교육 연수를 통한 학생과 학생, 스승과 제자 간 관계와 회복중심의 생활교육 지원 방안을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학교 관리자 및 학교폭력업무담당

자들에 대한 연수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학교폭력예방교육이 강화됐다. 도내 모든 초·중·고 및 특수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기당 1회씩 연 2회 등 총 5시간 이상 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대처방안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학급단위로 진행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 472개교에서 관계·회복·자치 중심의 학교폭력예방교육 운영학교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교폭력 담당교사 수업경감 지원, 포괄활동,

평화교육활동, 회복적 생활교육 활동 인건비증정 등 관계·회복·자치 중심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지원과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활동 등이 있다.

특히, 학생생활교육 강화를 위한 따뜻한 학급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해 눈길을 끌고 있다.

예를 들어 회복적 생활교육 '서클 운영, 학부모와 민남의 날 운영, 학급자치다모임, 학급 어울림 체험학습, 심리·정서 활동 등이 그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에 대한 대처 방법을 익힐 수 있는 다양한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학생 행형 행방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서거석 교육감이 지난 27일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을 만나 현안을 논의하고 있는 모습이다.

교육 현안 해결 위해 국회로

서거석 교육감, 여야 의원들과 면담... '교육 현안 협력' 당부

서거석 교육감이 취임 이후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를 찾는 등 소통의 폭을 넓히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서 교육감은 지난 27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강득구·도종환·서동용 의원과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 무소속 민형배 의원 등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교육계 현안에 대한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서 교육감은 강득구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학생인권과 교권이 조화롭게 존중돼야 한다”면서 “특히 교권이 바로 서야 수업과 학생지도가 가능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 5일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일명 학교생활지도법)’을 발의한 바 있다.

또한 서 교육감과 강 의원은 지역소멸 대응과 작은학교 살리기 방안으로 추진되는 농산어촌 유학과 직업계고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이들은 직업계고를 졸업하고 지역 내에서 취업하고 대학까지 졸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뜻을 모았다.

이어서 교육감은 권은희 의원과 대학입시 위주의 초·중등 교육 탈피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제 인종차별 프로그램인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교육의 내용과 국내 현황,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공교육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학생수요가 있는 곳에 학교가 신설돼야 한다’는 원칙을 언급하며, 전주 예곡사터, 군산 디오션시티, 완주 삼봉사구의 학교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을 대표발의한 서동용 의원을 만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한 논의도 했다.

서거석 교육감과 서동용 의원은 “대학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를 일시적으로 기금화하고 있지 않던 40년 이상 된 수많은 노후시설을 개축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데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운영난을 겪고 있는 대학 지원 예산은 유·초·중·고 예산에서 빼갈 것이 아니라 별도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을 만들어 해결하자”고 뜻을 모았다. /정은성 기자

수능 50일 앞으로... 전형별 다양한 지원 전력 필요

우선순위 따른 시간 배분 시간표 맞춰 생활패턴 연습해야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대입 전형 변화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고3 수험생들에게 수능 50일을 앞두고 집중해야 할 것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 등을 안내했다.

2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습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이는 대입 전형의 구조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눈높이 및 면접까지 준비해야 하는 학생들은 우선순위에 따른 시간 배분을 통한 학습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대입 전형에 지원한 수험생은 언제나 자신의 수시 전략이 꺾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남은 기간 현실적인 학습 목표를 세워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한다는 것도 함께 언급했다. 무작정 열심히 학습하기보다는 어떤 과목 혹은

어떤 문항을 공략해야 점수 또는 등급을 상승시킬 수 있는지 파악해 중점적으로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험 당일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의 실전 연습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수능 시간표에 맞춘 규칙적인 생활패턴을 정립하고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 특히 밤 늦게까지 공부하는라 정작 시험이 치러지는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취침 및 기상 시간을 조절해 실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도교육청 진학지도지원실 강세용 장학사는 “올해 수능을 잘 치르기 위해서는 남은 기간 현실적인 학습 목표를 세워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하며, 특히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건강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수능에 응시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시험 준비에 철저히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1월 17일 시행된다. /정은성 기자

중등특수학급 연합 현장체험학습 실시

안주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지난 21일과, 27일 2차례에 걸쳐 구례 자연드림파크에서 관내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2022학년도 중등 특수학급 연합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체험학습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기본 원칙에 따라 1차, 2차로 나눠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이 학교 밖 다양한 활동을 통해 경험의 폭을 넓히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들은 오전에는 공방을 견학하며 실제로 식품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식품 생산업이 하는 일 등을 직접 살펴보고, 오후에는 빵 만들기 체험을 하며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정은성기자·완주=이종복기자

손 씻기·마스크 착용... 개인방역수칙 준수해주세요.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